

The Architecture of Subjective Urbanism

자립도시의 건축



Procedural Organism School 박명원. SS 2026

Unit Master:

이재원 **JaeWon Yi** // 영국 런던 AA School을 졸업하고, 비물리적인 도시 구조가 현대 도시 문화의 핵심이고, 이와 연관된 물리적 도시 구조 및 건축 공간 연구가 더 나은 도시적, 건축적 삶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 이후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Urban Architecture Station, architects)와 도시진단연구소(Urban Diagnostic Lab)를 설립하여 다양한 성격과 스케일의 프로젝트와 연구를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 중이다. 주요 작업은 이태원 우사단로를 대상으로 뉴타운 개발의 대안으로써의 도시전략을 수립한 '크로싱 우사단로'와 가리봉동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문지방도시/변이건축', 염사리 주택 '일상휴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북쪽마당프로젝트 2등수상, 을지로 연구가 있다.

Unit Agenda_2026년

압축도시, 서울 / Compressed City, Seoul

지난 3년 동안 [Studio-X] UNIT 3에서 연구하고, 개념화한 '자립도시', '자립건축'을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로 확대하고자 한다. 자연 발생 도시(Informal City)와 계획 도시(Formal City)가 혼재되어 있고, 특징화되어 있는 서울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서울만의 변이, 변형 이론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 주체가 자발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건축과 어바니즘을 연구하고 설계하고자 한다. [Unit Presentation file](#)

건축과 삶 / Architecture and Life

건축과 도시 공간은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의 삶과 함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만, 그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건축과 도시공간이 우리 삶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지역 문화가 도시공간과 건축의 형태에 상호 영향을 주고, 문명을 성립하고 지속하게 하는 방식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건축의 형태와 공간이 공동체 삶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리켄 야마모토의 프로젝트가 이를 보여준다. 공간 역사가 정치와 권력에 따라서 변화하고 인간 지식 체계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푸코의 저작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LATE V41162: plan of Siena, 16th century [Leonardo Benevolo](#)



©Riken Yamamoto & FIELDSHOP

투명한 도시, 서울 / Transparency City, Seoul

현재 서울의 건축, 도시 공간과 구조는 어떠한가?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수만큼 그것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공간들이 존재할까? 한눈에 내부까지 보이는 매끈한 커튼월과 발코니 아파트 이외에 은밀하고 찾아가게 만드는 공간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도시 공간의 특성으로 다르게 인지할 수 있었던 피마길, 이태원, 마포, 여의도, 영등포를 이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백화점과 상업 공간 테두리 안에서 구별하고 있다. 이런 공간들은 바쁘고, 피로하고, 투명하게 스스로를 공개하는 현대 사회의 삶을 더욱 강화시킨다. 철학자 한병철이 얘기한 투명 사회가 투명 건축, 도시 공간과 함께 양상불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질병 / Disease

1960년대부터 근대화와 성장을 목표로 구축된 서울의 건조 환경은 과감하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하향식 재건축, 재개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균질하고,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산출이 용이한 건축, 도시공간과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이 모델은 금융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익숙한 일상의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런 공간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는 자발적인 창조, 자기만의 공간 구축, 온전한 휴식, 교류가 쉽지 않고, 심지어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도 어렵다. 이런 삶이 외로움, 불안, 강박증으로 연결됨은 어색하지 않다.

서울의 장소성 / Sense of place in Seoul

이 지점에서 헤르조그&드 뮌롱이 서울의 장소성을 읽는 것에 실패했다고 말한 거 같다. 서울은 서구의 건축 지식 체계인 타이폴로지로 해석하기 힘든 도시이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의 급격한 변화가 중첩되고, 배열되고, 우세한 건축 타입인 아파트와 오피스가 두드러지는 서울은 서구의 타이폴로지와 다른 지식 체계와 변형 이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중심지가 균질화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의 많은 곳은 압축적 변화에 따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을지로 / Euljiro

이런 특이점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을지로이다. 을지로는 투명, 불투명한 상태가 병치하는 장소이다. 도시 공간 틈과 중첩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제조업 공장과 높고 투명한 오피스 건물이 서로 마주보는 장소이다. 그리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와 1960년 후반의 근대, 현대의 시간이 적층되고 변형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1, 2층 제조업 공간 너머 위층에는 예술가들의 삶에 대응하여 변형한 공간이 드러난다. 오후부터 불이 켜지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외부 도시 공간과는 다른 내밀함과 그곳만의 독특한 공간의 질과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즉, 같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드는 도시/건축/공간 형태와 시간, 그것들이 드러내는 상실과 새로움이라는 감정이 이질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이와 같이 스스로 변화하는 생명력을 가진 다양하고 유연한 장소인 을지로에서 자립건축과 자립도시라는 개념을 생각하였고 이를 서울로 확장하여 연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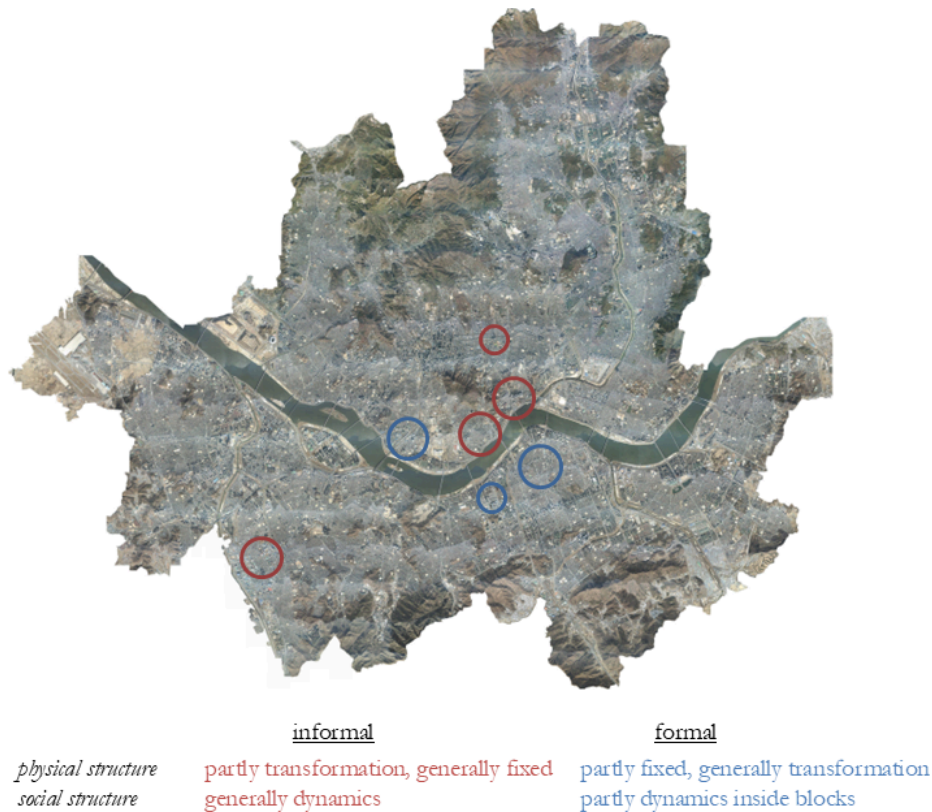
Hidden beauties in Euljiro_송원서 SS.2024



자립건축리서치_작은물_정용운SS 2024

자연발생도시 vs. 계획도시 / Informal City vs. Formal City

서울의 현재를 진단하고, 특성을 찾기 위해서는 균질화 되는 현상을 자연 발생 도시와 계획도시 관점에서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주로 강북과 영등포 지역은 자연 발생 도시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이 지역들은 을지로처럼 도시의 변화가 드러나고 중첩되고 그 결과 헤테로토피아 공간이 주로 발생한다. 이 곳의 변이와 변형은 건축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도시 조직, 구조도 같이 연동하면서 일어나고 이것이 지역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계획도시 지역은 재건축이 더 용이하게 진행되는 성격을 가진다. 이 지역은 재건축이 우세한 타입에 의해서 진행됨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내부 프로그램이 변화하면서 건축의 변이와 변형이 진행된다. 즉 건축의 변형과 변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 특성을 기반으로 을지로와 강남을 그룹을 나눠서 연구를 할 것이다. 즉, 연구와 제안의 틀을 자연발생도시와 계획도시 비교로 정한다. 이 관점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통해서 서울만의 변형이론과 도시 특성을 밝히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자립 도시, 자립 건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철학적 배경/Philosophical Background

압축 도시를 이해하는 철학적 틀은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의 개념과 연결된다. 압축 도시는 서로 다른 시대의 질서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푸코(Foucault)가 말한 ‘헤테로토피아’의 성격을 띤다. 을지로를 작동하는 공방의 협업, 생태계의 네트워크 등은 바디우(Badiou)의 ‘사건’개념과 연결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은 상징계가 아닌 실재계를 작동하는 주체로써 라캉(Lacan)의 ‘결핍’ 개념을 배경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대한 비평의 틀은 철학자 한병철의 책들을 기반으로 한다.

건축 이론/Architectural The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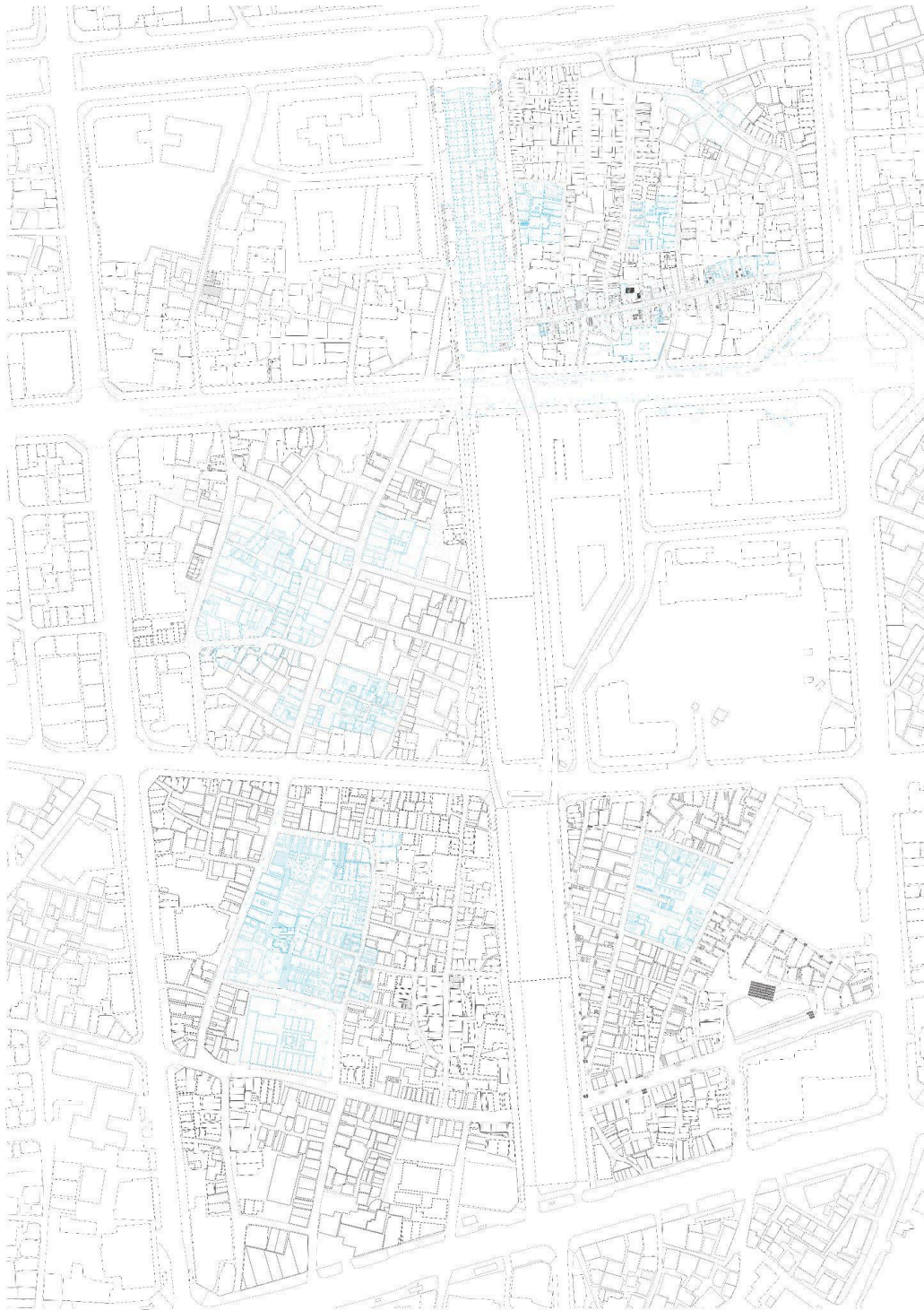
사회 시스템과 상호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Architecture and Urbanism interacting with social system) : Unit 3에서 목표로 하는 건축과 도시는 ‘사회 시스템과 상호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이다. 이는 프로그램과 분리하는 형태인 타이포로지에 반하는 안티 타이포로지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도시, 서울을 분석하여 변이의 과정과 방식을 파악하여야 한다. 어떤 지점에서 건축과 도시가 변이했고, 그것을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건축가가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인지, 사용자가 변형할 수 있는 것인지를 찾아서 분리하고 설계한다. 도시를 건축 형식을 찾기 위한 비평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라스베거스의 교훈(로버트 벤츨리, 데니스 스콧 브라운, 스티븐 이제누르)’, ‘정신 착란증의 뉴욕(렘 쿨하스)’, ‘메이드 인 도교(아틀리에 바우와우)’를 중요한 시작점으로 삼는다.

교육적, 학문적 기여/Contribution

근대 건축을 수용한 지 10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건축, 도시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일상의 교과서인 서울을 작가적인 시선과 분석의 틀로 해석하고 이론화해서 건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의 건축과, 도시 이론은 중요한 공부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가 그들의 지식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로버트 벤츨리가 로마에서 연구한 바로크 건축을 라스베가스 교훈에서 확장한 것처럼, 렘 쿨하스가 유럽과 다른 뉴욕 연구로 현대 건축의 새 장을 연 것처럼, 서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축, 도시 이론이 또 다른 건축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유닛은 교육적,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본 유닛에서 진행하는 도시 전략 디자인은 건축가들이 주도해야 하는 분야이지만 현실 실무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다. 도시 전략 수립과, 도시 공간 디자인은 ‘공간’을 다루는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건축가의 영역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을 교육함으로써 앞으로 졸업할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건축가의 영역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를 그리게 도와줄 것이다.

The Architecture of Subjective Urbanism / 자립도시의 건축



cooperative urban plan for Subjective Urbanism in Euljiro FS 2023-2025

개요 / Brief

1. 압축도시는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2. 압축도시와 건축을 시간적(역사적), 공간적(관계망과 공간)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주체적 삶)가 조절하는 어떤 건축언어, 요소, 형식, 비형식을 찾을 수 있을까?
3. 우리는 발견한 것 중에서 무엇을 얼마나 설계하고 제안해야 하는가?
4. 어떻게 건축 변이, 공간, 시스템, 사회적 조건과 연동하는 건축 요소, 언어, 비형식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까?

2학기는 1학기 결과물인 '리서치(Engagement)와 도시전략'을 프로젝트의 조건이자 시작점으로 삼는다. 이는 공모전에서 주어지는 설계 조건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학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도시 리서치(참여)와 (자립)건축 분석을 더 진행하여, 도시 전략과 건축 설계를 진행한다. 학생의 관심사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스케일(도시, 건축)의 비중을 정하고, 이에 맞춰 프로젝트의 깊이를 더한다.(건축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학생은 구조 시스템과 공간설계까지 진행한다.)

을지로와 강남의 사이트를 시간이 압축된 도시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평한 1학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1, 2, 3)의 항목과 내용을 발전시키면서 주체적 삶과 상호 대응하는 도시주의와 건축을 설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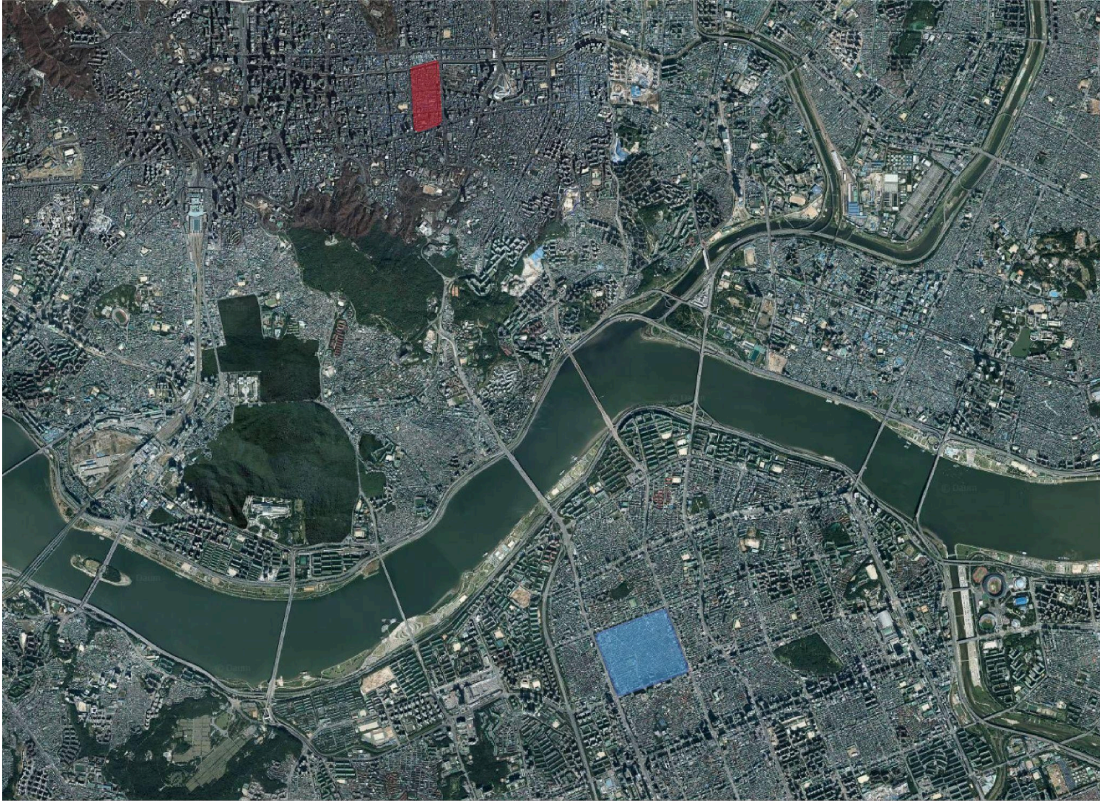
	을지로	강남
1.산업생태계와 도시,건축구조의 연관성	생성적,자연발생적 연계와 경향	분절적 집합성
2.도시,건축 만들어지는 방식	도시공간 중심의 건축	건축의 내적 질서의 따르는 건축
3.변이	끊임없는 브릿콜라주 방식의 변이	인테리어와 필지내 외부공간 변이

전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주체적인 삶과 상호 작동하는 을지로, 강남의 도시 형태, 시스템, 사회적 구조, 건축 형태, 변이 공간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정의 내린다. 두번째, 블록 내부 또는 블록 간에 이질적인 성격을 드러내거나, 사이트만의 사회적, 공간적 특성을 창발(emergence)하는 경계(perimeter), 영역(area), 공간(space), 건축(architecture)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정의 내린다. 세번째, 앞에서 발견한 도시와 건축 구조, 형태, 공간, 요소를 이용하여 경계, 영역, 공간, 건축을 변형하는 설계를 진행한다. 직접 행동하기(Direct Action) 또는 개념적 설계를 예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발전시켜 최종적인 도시 전략과 건축을 제안한다. UNIT3는 어떻게 도시 형태와 구조를 건축 형태, 변이, 공간, 시스템과 연동하는 도시 건축 형태와 구조를 탐구하고 설계한다.

을지로(Euljiro) vs. 강남(Gangnam) / 350x700m vs. 850x750m

사이트는 1학과 동일한 을지로와 강남 블록이다. 을지로와 강남은 도시 형성 과정(역사), 구조, 조직, 프로그램, 변이의 차이점이 많은 도시 공간이다. 을지로는 방산시장으로 시장하여 아래로 3개 블록(350x700m), 강남은 신논현과 논현역 사이의 오른쪽 블록(850x750m)이다. 두 사이트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 특성을 포착하고, 본질적인 도시 형성의

근원을 밝히면서 앞의 유닛 브리프에 맞추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간다. 학생당 을지로, 강남 중 하나의 사이트를 정하지만, 토론과 크리틱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를 비교·비평하면서 프로젝트 브리프를 써 내려간다.



을지로; 방상시장, 중부시장, 인쇄소 블록



강남: 신촌현역-논현역 오른쪽의 노점상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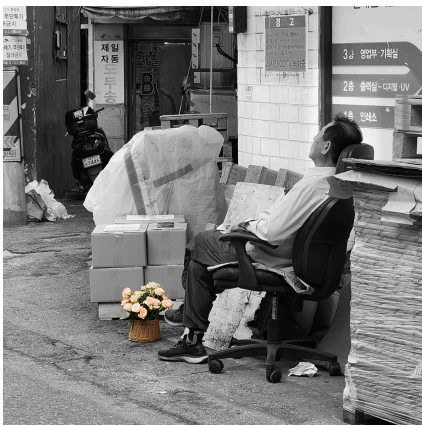
리서치 방법론 / Methodology

을지로는 오래됨과 개발이 충돌하는 곳이 아니라, 시간의 간격이 다른 새로움이 기존의 도시를 계속 덮고, 잘라내고 대체하는 장소이다. 강남은 계획도시의 틀 안에서 새롭게 건물이 만들어지고, 돌발적으로 덧대는 공간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구의 장소적 성격과 다른 이곳만의 특성을 생성한다. 즉, 을지로는 산업, 사람, 프로그램, 기술 등이 지속되고, 지나가고 변형하는 공간이자 장소이고, 강남은 정해진 틀 안에서 자본, 트렌드, 삶의 양식이 유지되지만 폭발적으로 변형되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과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Unit 3**에서는 현재 도시를 종립적으로 바라본다. ‘남겨진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종립적 자세를 취하고 양쪽의 가치와 한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에 더해 도시민을 길들이는 구조, 공간, 형태들을 비판(criticism)하는 것과 현재의 자발성을 찬양(celebration)하는 것을 동시에 인지하면서 다른 성격의 압축도시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참여하여 각자의 프로젝트에 맞는 방향을 선택한다.

탐정식 리서치, 직접행동과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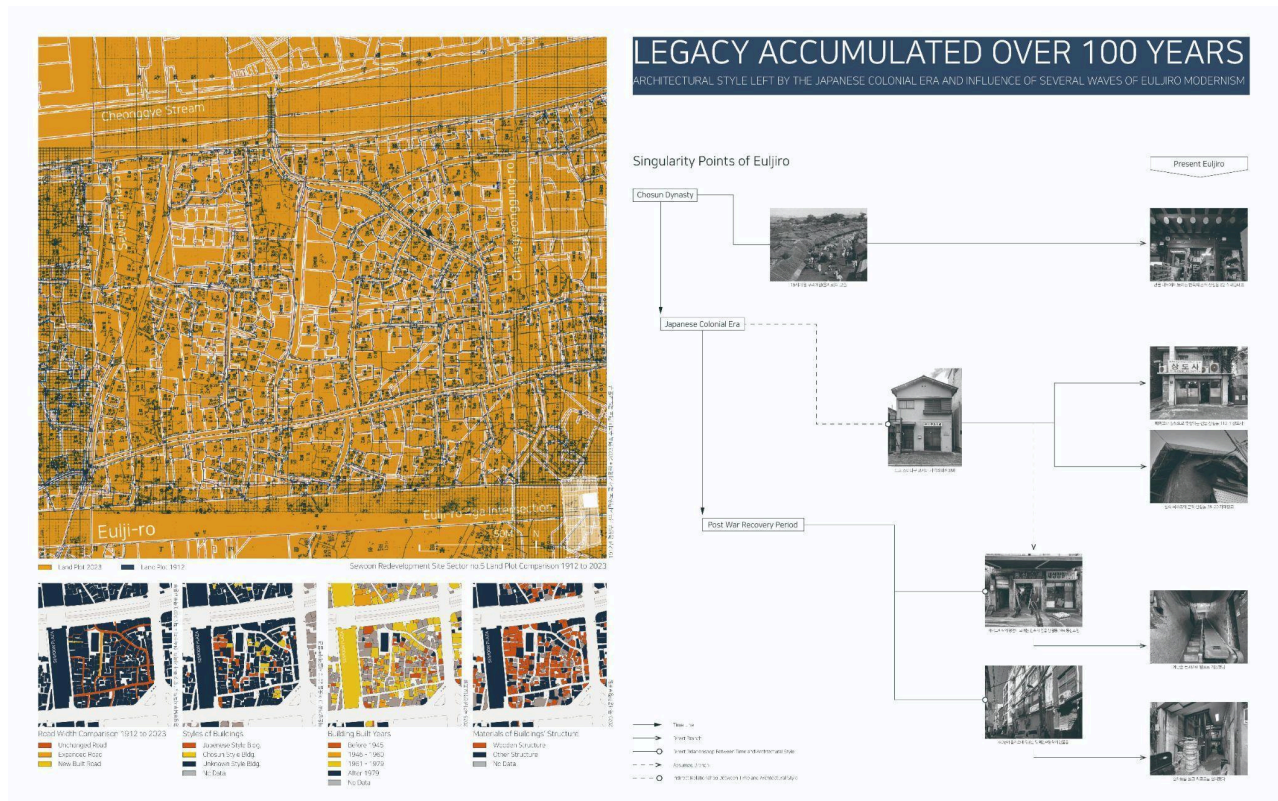
UNIT의 주요 방법론은 탐정식 리서치와 직접 행동(Direct Action)이다. 탐정식 리서치는 도시를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이해하고, 탐색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서 작지만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그것이 함의하는 개념과 이슈에 도달해야 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닌, 핵심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대상과 인터뷰, 관찰, 참여와 같은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자기만의 궤도(trajecory)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해 리서치 주제를 정하고 **PART1**의 결과물로 예비적 디자인 방식인 ‘직접 행동하기’를 진행한다. 이는 전술적 도시주의(tactical urbanism)로서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참여 방식이다. 이 방법의 현실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닛해서 선택해 둔 주요 인물과 공간을 소개받고 이를 중심으로 리서치와 직접 행동을 진행한다. 을지로와 강남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진행한 직접행동을 다큐멘터리 방식의 영상작업으로 정리한다. 다큐멘터리 프로덕션(버팔로 필름즈)의 감독님들과의 다큐멘터리 워크숍을 통해서 영상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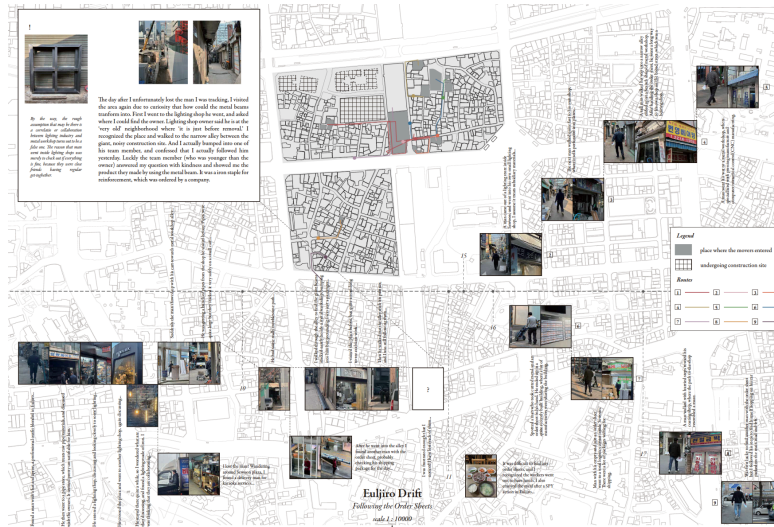
빅 데이터 분석, 원형을 찾기 위한 역사자료 분석

2025년 2학기에 이어 정량적 분석과 역사자료 분석도 함께 진행하여 입체적인 분석과 결론에 도달하도록 한다. QGIS를 통해서 각자의 탐정리서치에서 발견한 주요 내용을 정량적으로 상호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압축도시의 원형, 변형의 주요 원인과 방식을 찾기 위해서 지적도, 지형도, 소유권 등과 같은 역사자료도 같이 분석을 진행한다. 이 내용은 각자의 작업으로도 발전시키지만, 모두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모델을 만들어서 시너지를 내도록 한다.



지적 및 역사 자료 분석_임수빈 FS2023

PART 1 (Week 1 - 3) Defining the city / PART 2 (Week 4 - 5) Direct Action in the site



Time (Threshold)_유시영_SS 2024

PART 1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도시를 발견하고, 진단하고, 정의를 내린다. 주체적인 삶과 연계된 도시, 건축 형태 및 공간 구조를 발견하고, 이어서 도시 블록 내 또는 블록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계와 영역을 찾는다. 도시, 건축 형태와 공간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과 도시 구조와 작동하는 사람들을 총체화 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축의 위치를 학생 스스로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설계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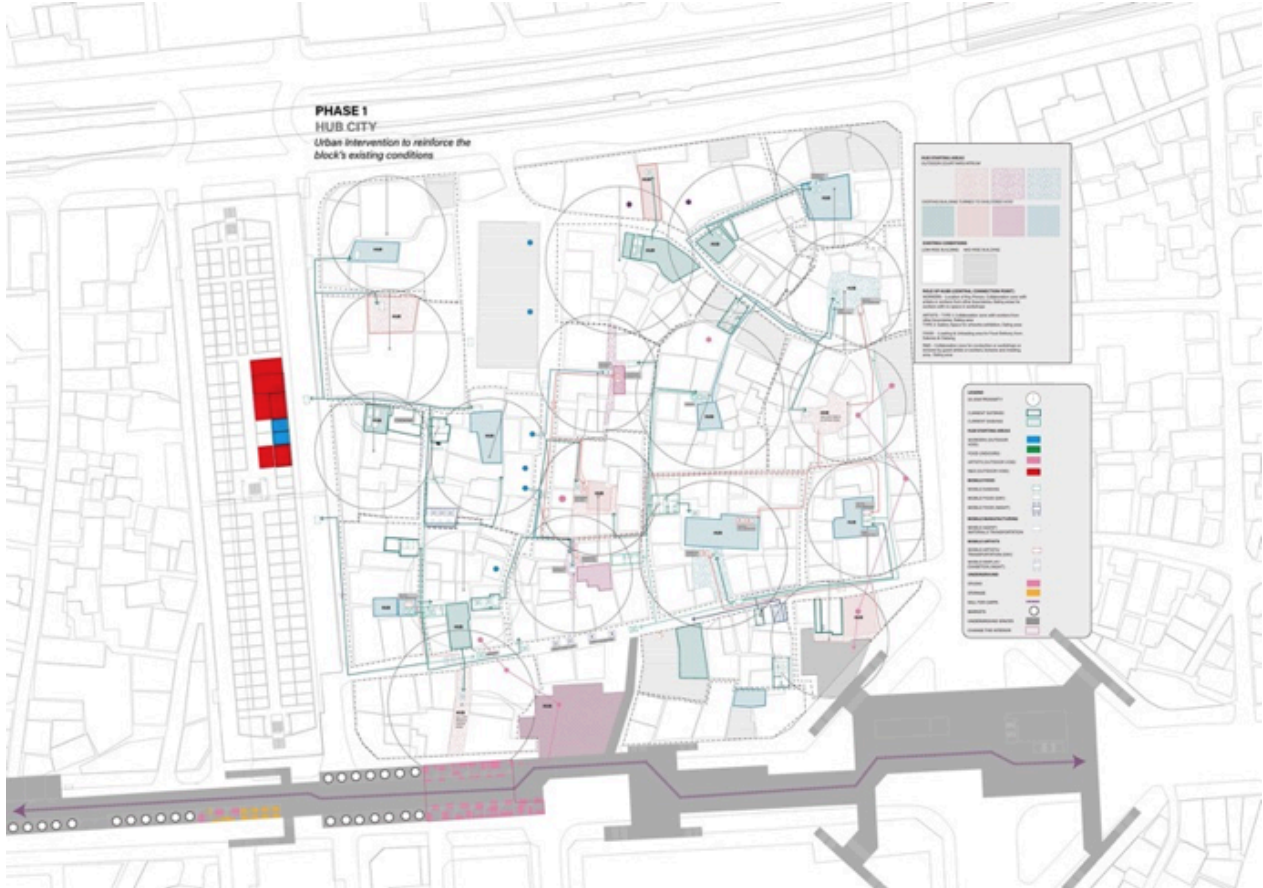
PART 2에서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을 정한 후, 예비적인 대안인 직접행동하기(**Direct Action**)를 디자인하고 실행한다. 을지로와 사이트에서 발견한 요소를 기반으로 액션을 기획하면서 분석과 제안의 중간적인 성격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도시 리서치와 분석은 지난 3년간의 'unit 도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이번 학기 리서치와 작업이 더욱 깊고 넓어질 것이다. 사이트 조사와 참여는 지역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자의 도시 표류(**urban drifting**)를 진행한다. 비판적인 과정은 드로잉, 사진, 영상, 모형, 글을 통해서 시각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드로잉은 배치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평면도,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단면도,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엑소노메트릭과 콜라주를 중심으로 사용한다. 사진과 영상은 드로잉이 담지 못하는 순간과 분위기, 시스템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한 학기 동안 생각과 발견, 진단, 결과를 드로잉, 영상, 모형, 글을 통해서 매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방법은 아래의 워크숍과 렉처를 통해서 발전시킨다.

1. 주제 강의: 스튜디오의 주제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강의를 통해 스스로의 분석, 디자인 방향을 잡는다.(외부강의)
2. 리딩 세미나: 스튜디오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리딩 리스트를 같이 강독하고 분석하면서 사고의 깊이를 키운다.
3. 드로잉 및 사진/영상 워크숍: 분석과 디자인 툴인 시각적 자료의 중요성과 생산하는 방식을 익힌다.

ref.2025-1학기 다큐멘터리- 박명원,이채운: https://youtu.be/g_BPqtvFab0 여효련:<https://youtu.be/wbQKnKKduSQ>

4. 포트폴리오; 드로잉, 사진, 영상, 글

PART 3 (Week 6-9) Cooperative Drawing and Develop preliminary proposal



Common Field within the block_Rachel Ariella Saly, 전예진, 이재준_FS 2023

PART 1에서 진단하고 분석한 도시, 건축 형태와 공간들을 검토하고, '협력적 드로잉'을 통해서 개별적인 주제, 키워드,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예비적인 제안인 '직접 행동하기'(PART 2)를 리뷰하고, 추가 리서치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방향과 논쟁점을 드러낸다.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도시 및 건축 형태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방식과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변형하면서 설정한 경계와 영역을 디자인한다.

이 과정은 디자인 워크숍(intensive design workshop)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다. 워크숍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을 위한 도시 전략 및 경계'가 무엇인지 만들어 나간다. 도시 및 건축에서 무엇을 남기고, 집중할지, 어떻게 집중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 전략 및 공간을 만들지 탐구하며 드로잉과 함께 발전시킨다.

1. 협력적 드로잉 워크숍: UNIT 3의 발견을 하나로 그리는 드로잉 워크숍

2. 디자인 워크숍: 스스로의 디자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워크숍, 학생 또는 그룹별로 디자인 방법을 정해서 발전시키도록 한다.; 병렬배치(juxtaposition) 또는 오버랩(overlap)과 같은 디자인 방법론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도 있고, '조건(condition)', '프로그램(program)', '총칭적인(generic)' 것과 같은 디자인 테마를 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PART 4 (Week 10-16) Design urban perimeter and areas by Subjective urbanism+architecture



Autonomy로 발전하는 공유공간_김은호.FS 2024

개념, 아이디어, 예비적 제안을 도시 전략으로 발전, 확정하고 동시에 건축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도시, 건축, 공간 스케일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건축 제안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안(proposal)으로 발전한다. 3학년은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고 4학년은 프레임워크와 구체적인 제안을 모두 설계한다. 13주차부터는 프리젠테이션을 고려하면서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적 자료가 얼마나 프로젝트 발전에 도움을 주는지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의 강점을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15주차에는 Cooperative Urban Strategy / Imagery 작업을 진행한다. 학생 각각의 건축 프로젝트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요소들을 도시 스케일에서 모두 함께 드로잉을 하는 작업(Urban Strategy; Cooperative Drawing)이다. 이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의 건축 프로젝트가 도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주체적 삶으로 만들어지는 을지로의 경계와 영역을 재개발 구역과 대비하면서 드러낸다.

결과물

학생들은 매주 정해진 양의 시각적인 생산물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 드로잉, 영상, 모형, 글, 리서치를 정리한 자료, 레퍼런스 분석 자료 등이 시각적인 자료이다. 드로잉은 핸드드로잉, 컴퓨터드로잉, 모형,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매주 꾸준히 쌓여가는 드로잉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중간발표, 최종발표는 포트폴리오 편입을 중심으로 필요하면 영상과 PPT 자료 같이 사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의 시각자료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 전체를 설명하는 드로잉 1장과 모형을 생산한다.

* 최종 제출물: Thesis와 연속적인 드로잉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 big cooperative drawing for analysis and proposal, 영상, 리서치 북클릿, 모형(다양한 방식 적용), 발표에 사용한 PPT자료(영상 포함), 앞 내용의 원본파일

평가

포털상의 수업계획서 참조. 설계 수업은 상호 간의 소통과 크리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닛 전체 수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잘 참여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크리틱, 토론, 협업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단계별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리딩 세미나(Reading Seminar)

유닛에 지원한 학생들은 2월 중에 다음의 책을 2권 이상 읽고 오길 바란다.

1. (시)그날 | 이성복
2. 리추얼의 종말 | 한병철 | 김영사
3.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 | 한병철 | 김영사
4. Homo Ludens(호모루덴스) | 요한 하위징아 | 연암서가
5. Theory of derive | Guy Debord A user's guide to detournement | Guy Debord, Gil J Wolman
6. 플로팅 시티 [수디르 벤카테시](#) 지음 | [문화경](#) 옮김 | [어크로스](#) | 9788997379453
7. The Agency of Mapping: Speculation, Critique and Invention | James corner
8. 사물들 | 조르주 페렉 지음, 김명숙 옮김 | 펍권클래식코리아 | 9788901181073
9. 라캉, 들뢰즈, 바디우와 함께하는 도시의 정신분석 세트 | 장웅순 | 이학사 | 9788961474696

참고 프로젝트 (Reference Projects)projects)

1. Cedric Price _ Fun palace ; 책 - Cedric Price works 1952-2003 : a forward-minded retrospective . v. 1, Projects, 720.941 P931Y 016a v.1[신촌]도서관/사회·역사자료실(중도3층)
2. Cedric Price _ Pottery thinkbelt ; 책 - Cedric Price : Potteries Thinkbelt Hardingham, Samantha 720.941 P931Y 007b [신촌]도서관/사회·역사자료실(중도3층)
3. Walter Segal, Lewisham housing; 유튜브 - <https://youtu.be/0lbqJNAUOR8?si=2IYHh5yP1nk5kZrO>, 웹사이트 - <https://www.spatialagency.net/database/walter.segal>
4. Bernard Tschumi - New Acropolis Museum; 책 - Acropolis Museum, Athens Tschumi, Bernard, 727.60009495 010a[신촌]도서관/사회·역사자료실(중도3층)
5. Bernard Tschumi - Le Fresnoy ; 책 - 725.80944 99a [신촌]도서관/사회·역사자료실(중도3층)
6. Andrea Branzi ; 유튜브 - <https://youtu.be/21foVMPaemI?si=kfw-4ySpu-vS8cP->
7. Archizoom ; 책 - Weak and Diffuse Modernity
8. Andrea Branz ; 책 i-Domestic Animals
9. 책 - Elements of Architecture-Rem Koolhaas; 729 018c [신촌]도서관/사회·역사자료실(중도3층)
10. TypicalPlan | Francesco Marullo

참고 문헌 (Reference)

THEORY+WRITING

공간의 생산 | 앙리 르페브르 | 에코리브르

스펙타클의 사회 | 기 드보르 지음, 유재홍 옮김 | 울력

정크스페이스 | 미래도시 / 렘 쿨하스, 프레드릭 제임슨 지음 | 임경규 옮김 | 문학과지성사 |

Fatima Pombo-Nomadic Interiors | Hilde Heynen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at Fifty | Robert Venturi | The Museum of Modern Art | 1633450627

Inscriptions: Architecture Before Speech / K.Michael Hays(Editor), Andrew Holder(Editor) /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PROJECT/CITY RESEARCH+THEORY

LONDON+10 | Carlos Villanue Brandt | Architectural Association Publications | 1902902831

Learning from Las Vegas | Robert Venturi | The MIT Press | 026272006X

The Image of the City | Kevin Lynch | The MIT Press | 0262620014 Made in Tokyo: Guide Book | Junzo Kuroda, Momoyo Kaijima | Kajima Institute Publishing | 4306044211

Cities Without Ground:A HongKong Guidebook|Adam Frampton,JonathanD.Solomon,Clara Wong|ORO

ARCHITECTURE IS PARTICIPATION | Susanne Hofmann | Jovis Berlin | B015X4CC2G

토레 다비드:수직형 무허가 거주 공동체 |알프레도 브릴램버그 , 후베르트 클롬프너 지음 김마림 옮김 | 미메시스
Cedric Price - Works 1952-2003. A Forward Minded Retrospective | Samantha Hardingham

PRESENTATION

동굴도 읽기 | 안휘준 지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단면의 정석 | Paul Lewis , Marc Tsurumaki , David J. Lewis 지음 , 남수현 옮김 | 시공문화사

Notations:Diagrams&Sequences:Diagrams and Sequences | Bernard Tschumi | Artifice Books on Architecture

Graphic Anatomy | Atelier Bow Wow | Toto | 4887062788 Graphic Anatomy 2 | Atelier Bow-Wow | Toto

지원 사업 (Funding)

고등교육혁신원 사회혁신역량 전환,개선 교과목 선정; 학생 사회혁신 활동 장학금 신청 가능 - 비교과 프로그램인 '워크스테이션' 학생 개별 신청 및 선정 시 지원 예정(고등교육혁신원 홈페이지 및 LearnUs 강의실 공지 예정)

UNIT 3 작업 및 관련 작업 (Sample Works)

- https://www.instagram.com/p/DCYQXMxvctA/?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IODBiNWFIZ
[A==](#)
- https://issuu.com/jaewon.yi/docs/1_sublife_no1_240827
- https://issuu.com/jaewon.yi/docs/2_sublife_no2_artshift_240826_update
- https://issuu.com/jaewon.yi/docs/3_sublife_no3_240827
- https://issuu.com/jaewon.yi/docs/4_sublife_no4_alexroom_240826
- https://issuu.com/urarstation/docs/5_sublife_no5_artroomblue_0826
- https://issuu.com/urarstation/docs/6_sublife_no6_spaceunit4_240826_update
- https://issuu.com/urarstation/docs/7_sublife_no7_r3028_240826_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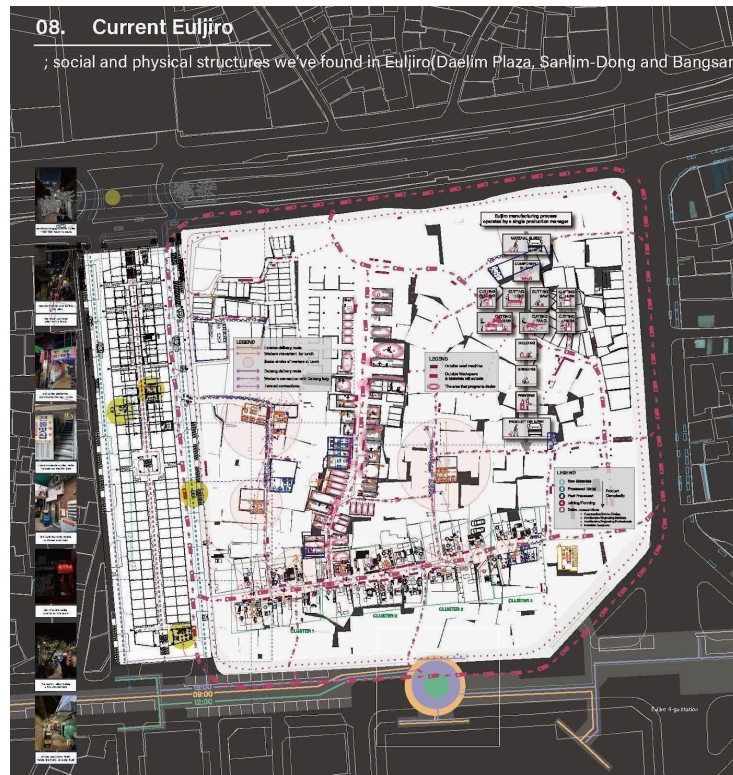
[Urban Eng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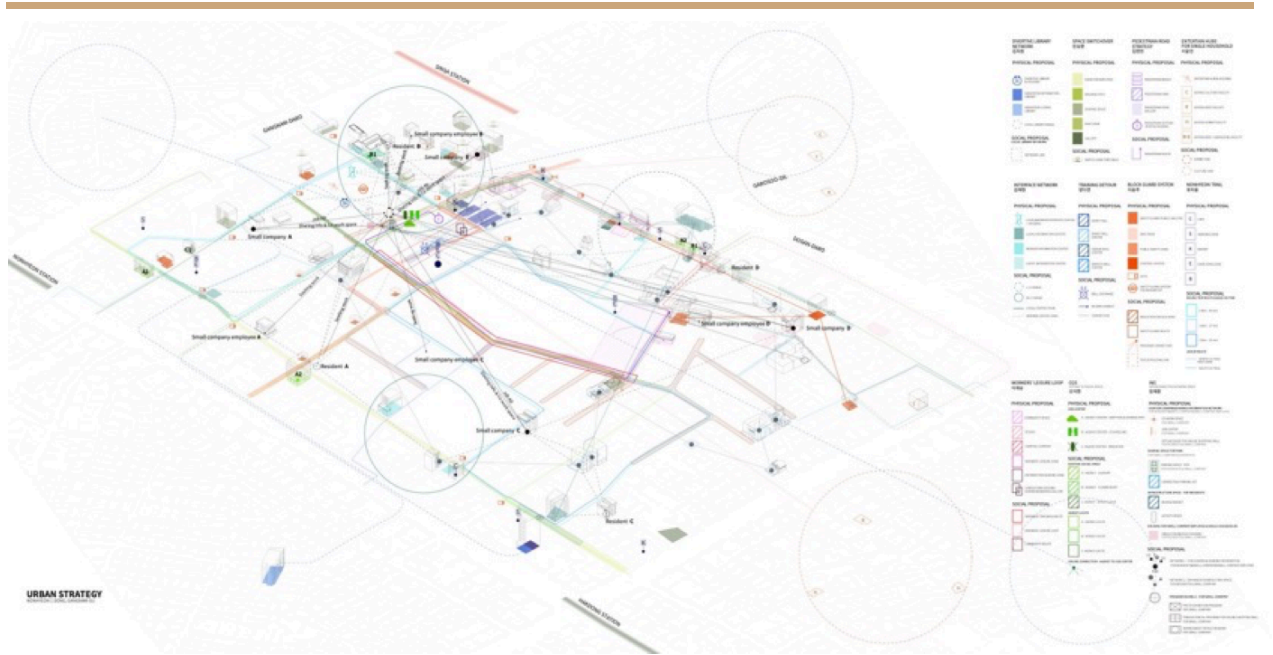
Threshold city, Garibong_도시건축정류소



Research on current transformation in Euljiro(산림동) by engagement_Cooperative Drawing FS2023



Research on current transformation in Euljiro by engagement_Cooperative Drawing FS 2023-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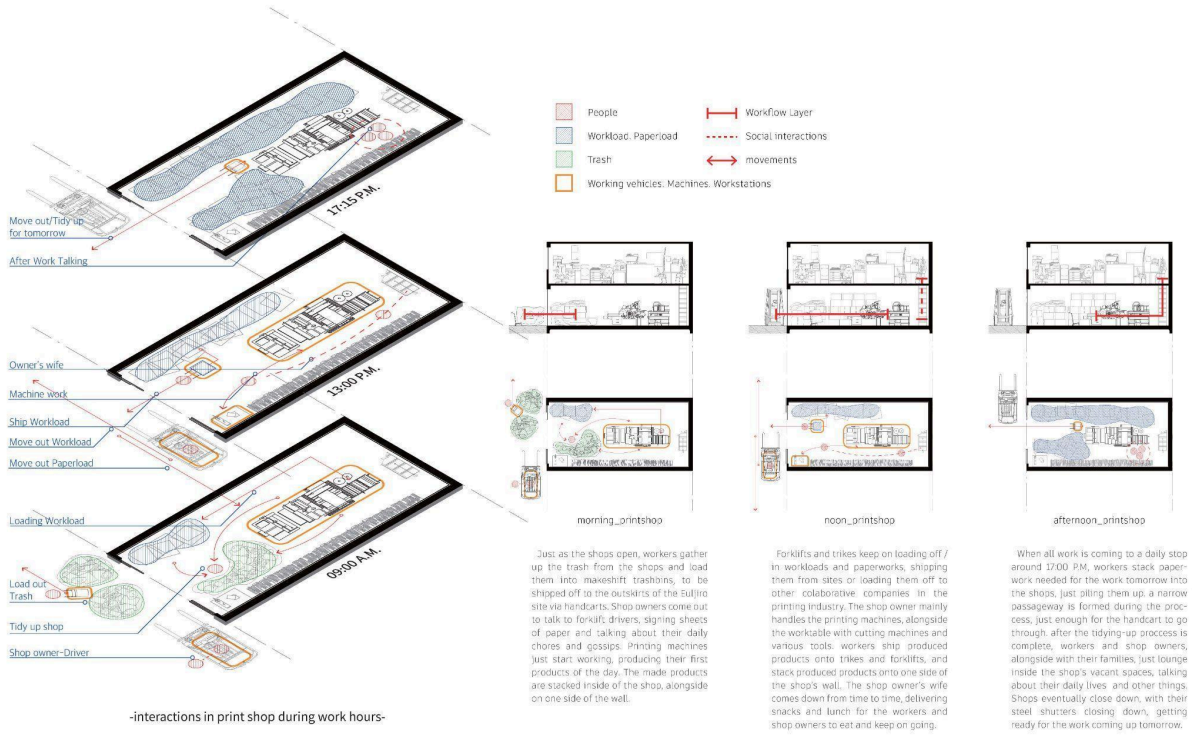
Nonhyeon living Architectural Network_Collective Drawing_단국대학교 3yr SS 2017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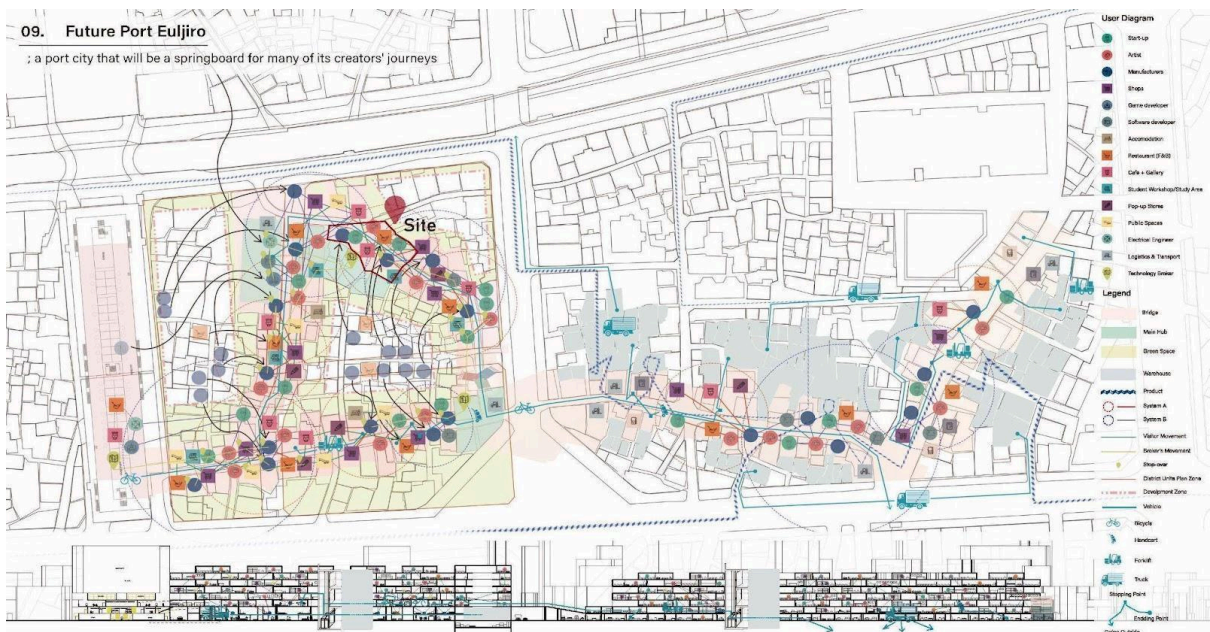
Deep structure in Euljiro_오하진 FS2025

Research



Deep spatial structure in Euljiro_오하진 FS2025

[Urba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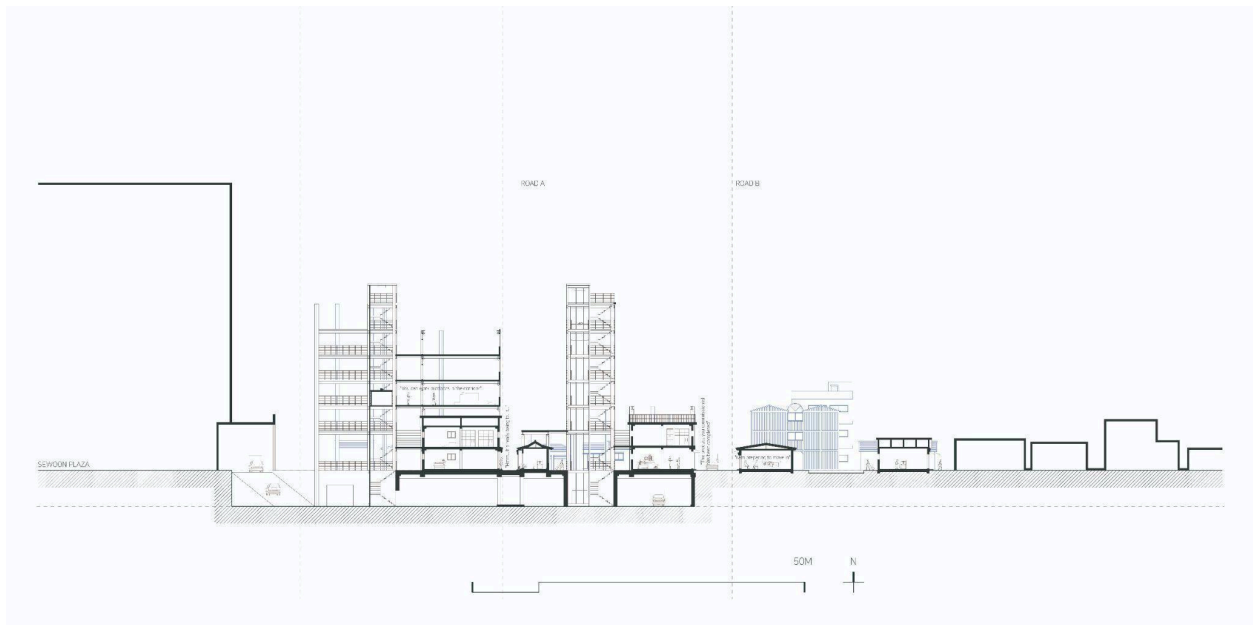
Future Port Euljiro_송원서,이예원,김지영,Jonathan Lau, Li Xianshu_F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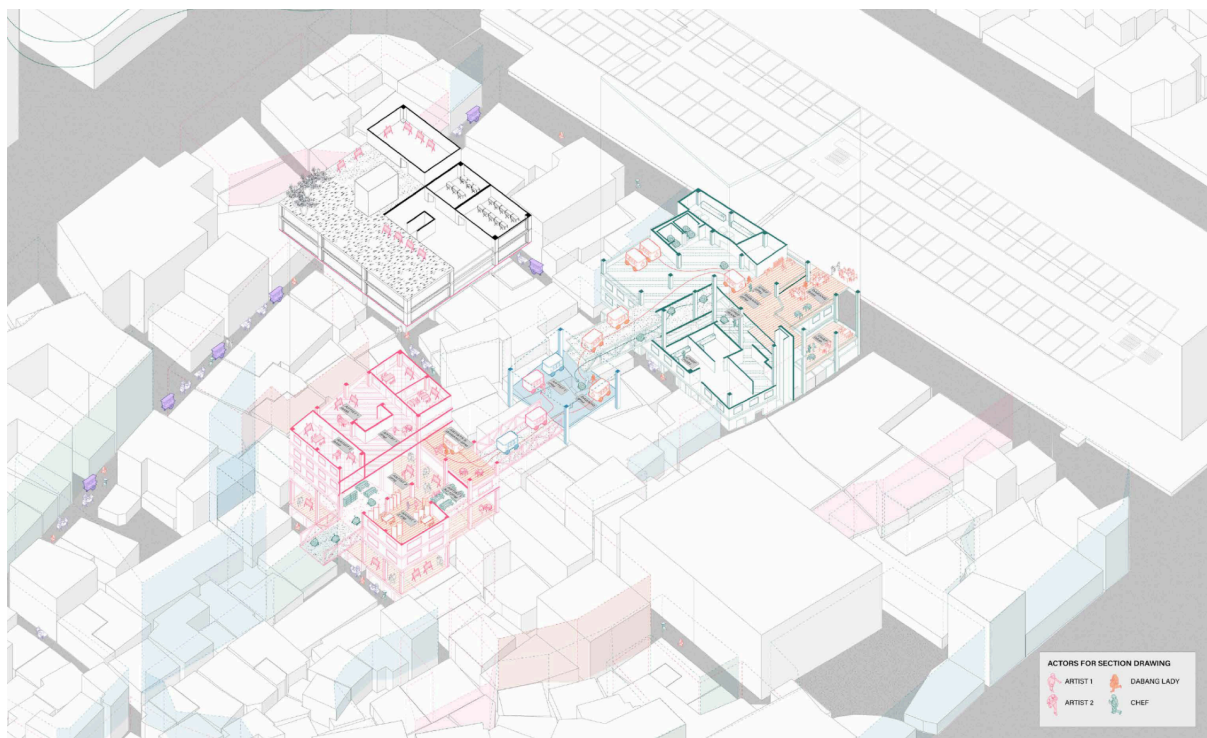
Hypocritical Ikebukuro_송원서, 김지영, Li Xianshu, 이예원, Lau Enci Jonathan_FS 2023 Tokyo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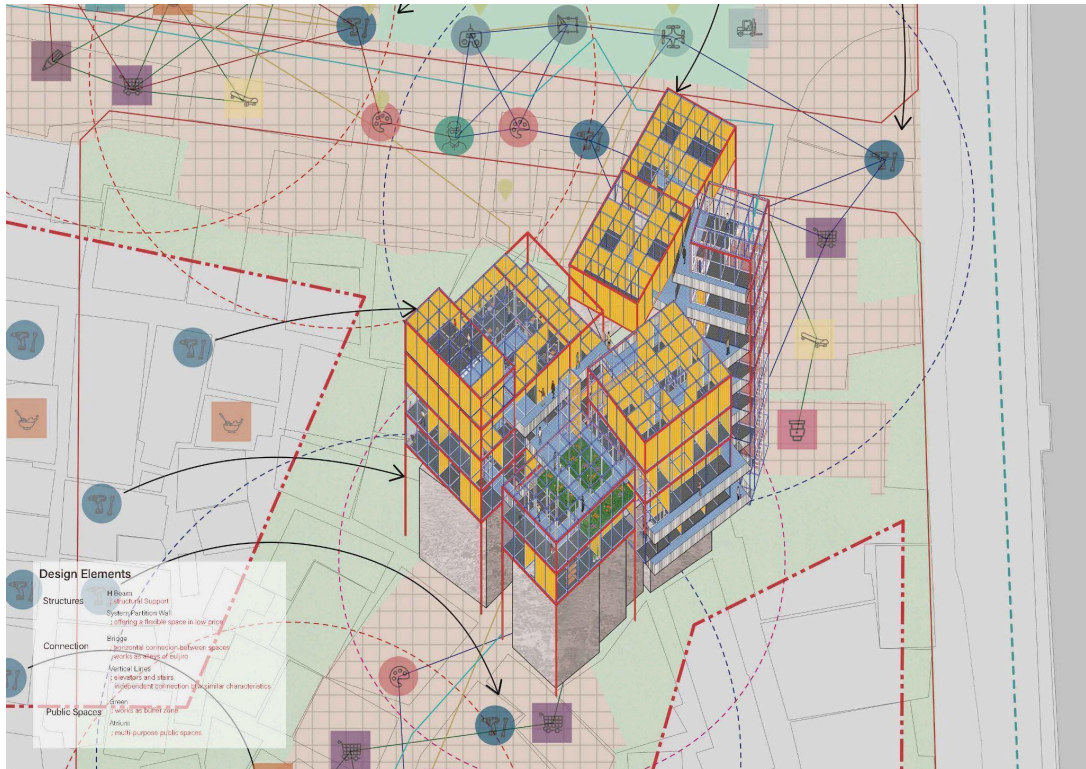
Cultural Intensity_윤요한, 이재준, 전예진, Rachel Ariella Saly_FS 2023 Tokyo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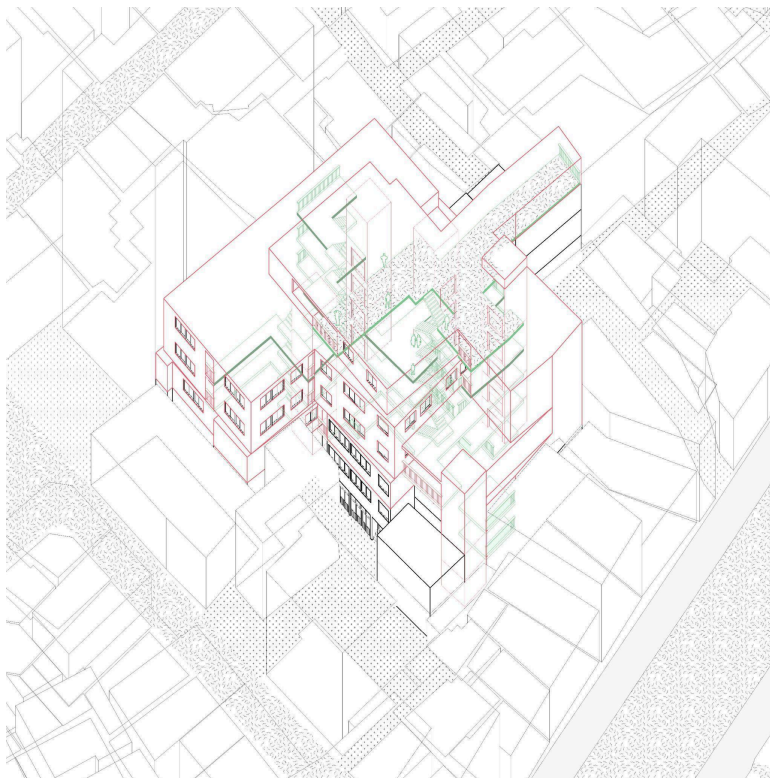
The Accumulating way of Euljiro_임수빈. FS 2023



Hub city_Rachel Ariella Saly. FS 2023



Ensemble Architecture_이예원.FS 2023



Dual Street Space_황재용 FS 2024



Studio X-UNIT 2 한경준 SS 2025

[Subjective Architecture]

07. Transformation Section 2 (Japanese)

입식 가옥을 변형시켜 들어간 공업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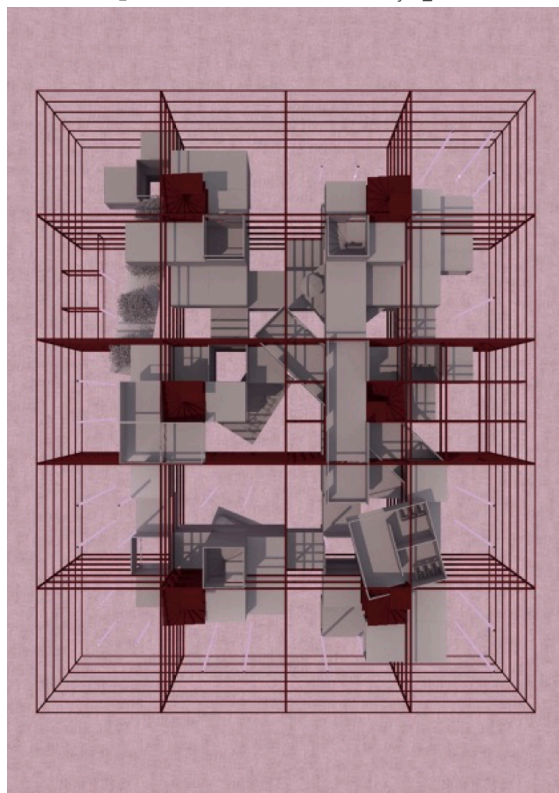
- '마치코바'란 이름에 걸맞게 소규모 공간이 밀집되어 있음
- '나가야(일본식 연립주택)' 형식을 발견할 수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 맞추어 일본인들의 배후 주거지에 지어진 목조 주택들을 발견할 수 있음
- 천정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기둥을 없애거나 다락을 없애기도 하고, 다락의 일부를 남겨 창고 혹은 사무실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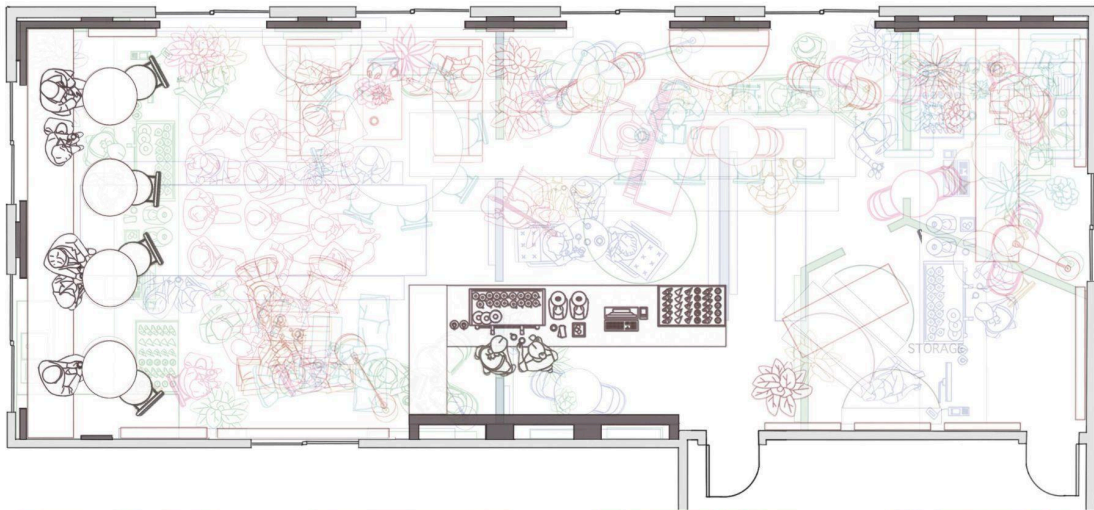
Transformation Section_ 이에원.SS 2023



자립건축 제안_Hidden beauties and structure in Euljiro_ 송원서.SS 2024



Improvised Architecture_허성우.SS 2023



"Artshift 공간을 처음 설계하고 계획할 때, 모든 것이 하나의 컨셉처럼 보였고, 저희가 나누는 빈 공간이 저희의 예술적 면모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테이블을 컨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계획은 굉장히 신이 났어요. 한 번은 숲 속 일사귀를 주제로 테이블을 받치도록 할까? 곧 자부심을 느꼈죠. 그치만 곧 이 디자인이 고대들에게는 시각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달았어요. 특히 고객들이 SNS에 컷리 사진을 올릴 때, 테이블이 배경으로 너무 강렬한 사진이 찍히지 않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 공간을 피렌체로 할 땐, 저희는 영업 시간에 열람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밤에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난이 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완전히 뒤로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이번에는 자연광에서 작업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낮에 작업을 했어요."



"어두운夜色으로 공간을 칠한 후, 저희가 저희 건물에 강한 빛을 넣었어요. 특별한 밤 세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빛 색상과 각도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빛 대담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았다고 느꼈어요."

©Artshift all rights reserved.



"2028"이라는 팀은 2028에서 처음 만난 8명에서 만든 동아리였습니다. 대학원 동아리였는데 제가 식사는 교육학을 했어요. 미술 교육을 전공을 했고 고대 미술교육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 작가를 하고 싶었던 교육도 하고 싶은 친구들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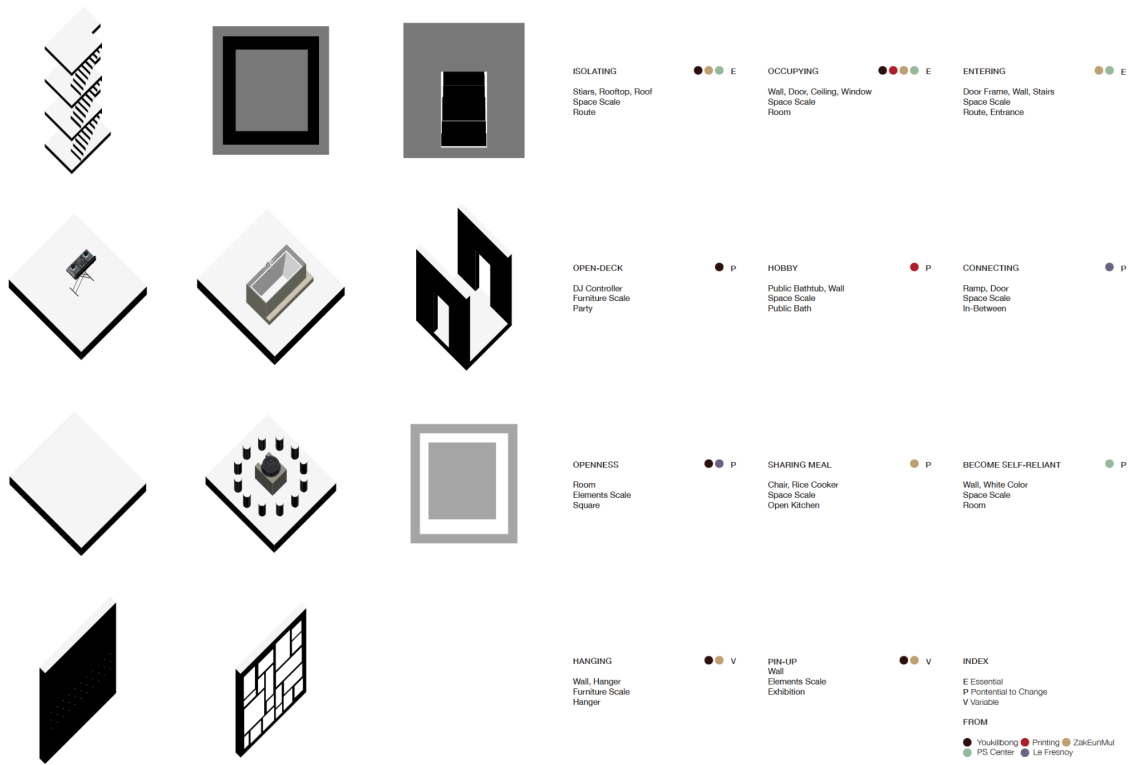
처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고 작업실을 만들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안도었는데, 점차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죠. 중간에 사람들도 계속 나가고 바뀌고 했고, 처음 팀 중의 마지막까지 남은 건 저 혼자였어요.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된 거예요. 나만 친구들은 지금 교직에도 있고, 다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거나 이기 계산 시장님은 일당에서는 공공에서 제재받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가거나 옮겨났는데, 갑자기 그 공실에 예술가를 지원한다고 하면 마음에 전혀 안 들고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재를 받아야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시선으로 저희를 보시다가 예술이 좀 보지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예술이 많을 땐 땀 흘리며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제 나를 축복하게 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움을 주신 거죠.

원래는 별이 다 딱 떨어졌지만, 꽃에서 여러 방으로 나눠서 사용하려고 했어요. 가장 큰 방은 우리 공간 안의 마당이 원래서 이기를 전시키고 공헌하고 감언하는 데로 쓰려고 했었고 그리고 뒤쪽은 우리가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소중하고 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해서 이 방 방들은 저희 사무실처럼 쓰고, 또 한 방은 우리도 제약을 받고 화 있고, 당장의 작업실로 필요한 게 아니냐 누구가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시고 그랬죠.

제 안에서 펼쳐지는 순간이 좀 있었는데, 이 기획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방향을 잡게 됐어요. 결국 제하고 싶은 예술의 형태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그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조만간 스터디했던 내일이 찾아오고 다음에 화가 가라앉았어요. 네가 이거 너무 하고 싶으면 누가 이거 하고 싶으면 원래는 제 아니잖아요. 이게 제 안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자리에 점점 가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길이 펼쳐지고 다음이 안정되니까 이 친구가 이걸 잘하고 있으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니까 기획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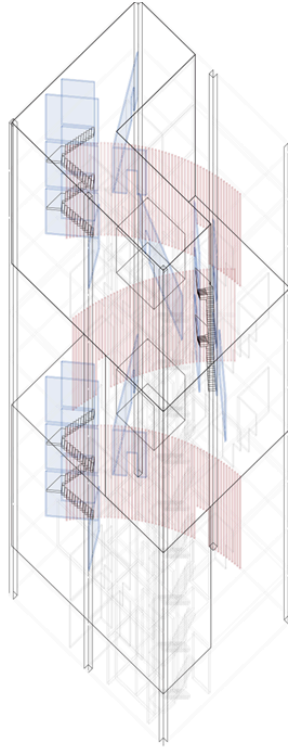
앞서 말한 기획들을 하면서, 작가들을 찾아다니고 인터뷰하고, 이 사람 5년 후에 뭐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차곡차곡 데 이비 모으고 있거든요. 근도 정리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시작 예술의 형태도 보여주는 자리도 있을 거고, 모음집만 이렇게 내놓으라는 자리도 있을 거예요. 또 전시로 기획해서 그 아티스트 문들을 초대하는 자리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또 꼭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것 같아요."



-of the other_허성우 SS 2024



of the other_허성우 SS 2024



이연지 SS 2025

Unit 지원자들에게 알림

설계는 창의적인 작업이기도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 일이다.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이 질문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방향을 찾고, 만들고, 주장을 세워 가는 것이 3, 4학년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의 재미를 느끼고, 유닛의 방향과 비교 분석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와 생각을 정리하고 드로잉 방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Unit에서 질문하고 답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공감기 이번 학기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 유닛의 주제에 관심이 있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미리 브리프를 여러 번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오면 좋겠다. 이에 더해서 우리 유닛뿐만 아니라 다른 유닛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STUDIO-X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자산일 것이다. 일상에서의 발견을 좋아하고, 사회 구조와 연계하는 건축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학생을 기다린다.